

# 조선 왕릉 石獸 연구

김은선 \*

I. 머리말
II. 조선 왕릉 石獸의 배치
III. 조선 왕릉 石獸의 도상과 상징
IV. 조선 왕릉 石獸의 양식 변천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왕릉 石獸란 石羊, 石虎, 石馬의 동물석을 말한다. 石獸는 왕릉을 수호하고 있는 가장 웅장한 조형물로 辟邪와 吉祥을 상징한다. 石獸의 기원은 前漢 霍去病(B.C.140~B.C.117) 묘의 기념비적인 동물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국능묘조각사의 始原이다. 또한 南朝시대 齊 武帝(440~493) 景安陵이나 梁 文帝(444~494) 建陵의 石獸는 S자형의 굴곡을 이루는 南朝 조각의 대표적인 걸작이다. 南朝의 石獸는 길이 3~4m에 달하는 웅장한 조각인데, ‘天祿’과 ‘辟邪’, 혹은 ‘麒麟’, ‘獅子’라고 불리우는 중국 神獸의 상징적인 조형물이다.<sup>1</sup>

우리나라 능묘 石獸는 통일신라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여러 능묘의 호위 석물로 조성되었다. 그 중 掛陵(傳 元聖王陵, 785~798) 석사자는 양감이 풍부하고 조각수법이 우수하

\*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sup>1</sup> 范曄(398~445)의 『後漢書』에 의하면 ‘宗資는 南陽 안중인이다. 묘는 등주 남양에 있는데, 묘 앞에 두 마리 石獸가 있다. 그 어깨에 하나는 天祿, 하나는 辟邪라고 새겨져 있다’(歐陽脩 『集古錄』跋尾 卷三 「後漢天祿辟邪字」…宗資, 南陽安眾人也, 今墓在鄧州南陽界中, 墓前有二石獸, 刻其膊上一曰天祿, 一曰辟邪, 楊曉春, 「关于南朝陵墓神道石兽的名称问题」 『东南文化』总第209期(南京博物院, 2009年 第3期), pp. 72-73.

다.<sup>2</sup> 이러한 통일신라 능묘 石獸의 전통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 石羊, 石虎, 石馬로 정립되었다. 조선 왕릉 石獸는 石人과 비교되는 중요한 석물 중 하나로 辟邪와 守護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함축하고 있다.

조선 왕릉 石物에 대한 미술사 연구는 2009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심화되었다. 그에 비해 石獸, 즉 石羊, 石虎, 石馬의 동물석에 대한 미술사 관점의 연구는 아직 기초단계이다. 지금까지 조선왕릉 石獸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선 전기에 제한되었거나 특정 왕릉의 石獸로 제한되었다. 또한 미술사 관점이 아닌 역사학적 관점으로 논의된 연구가 많다.<sup>3</sup>

따라서 이 논문은 미술사적 관점으로 조선 전시대에 걸쳐 왕릉의 石羊, 石虎, 石馬의 동물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중국 황제릉과 諸王陵의 石獸를 비교하여 폭넓게 조망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비교는 明 초기 황제릉급인 皇陵, 祖陵, 孝陵과 제왕릉급 중 개국 공신릉인 岐陽王陵, 中山王陵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조선 왕릉 石獸의 특징을 살펴보고, 도상의 수용과 변용,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 왕릉 석수의 시대별 양식 변화와 제작 匠人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는 것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 II. 조선 왕릉 石獸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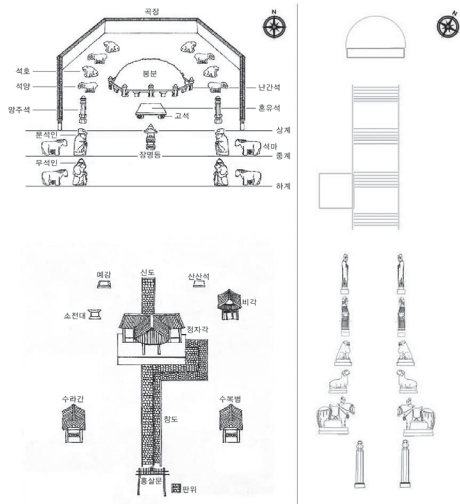
조선 왕릉 石羊과 石虎의 배치는 태조 健元陵(1408)의 배치를 기준으로 삼는다.<sup>4</sup> 陵

<sup>2</sup>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사자』(2006), pp. 166-177.

<sup>3</sup> 조선 왕릉 石獸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우방, 『梨大博物館 所藏 돌 호랑이의 魔力』, 『우리 옛 돌조각의 힘』(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7); 김이순, 『莊陵과 思陵의 석물 연구-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文化財』제45권 제1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김이순, 『세종실록의 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36권 1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배운수, 『朝鮮時代 王陵 石獸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진홍섭, 『昭陵 石虎』, 『藝林』창간호(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1968);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제도의 성립과 石人, 石獸 양식 연구』, 『美術史論壇』29(한국미술연구소, 2009).

<sup>4</sup> 태조 健元陵(1408)의 경우 고려 공민왕 玄正陵(1365~1374 완성)의 배치를 참고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다소 다르다. 玄正陵은 쌍릉의 배치이기에 석물 수량이 2배이고 제도 초기 과도기단계여서 石羊과 石虎의 순서가 일정하지 않아 健元陵과 동일하지는 않다.



도 1 조선 건원릉 배치(좌)와 명 기양왕릉 배치(우) 비교

상의 구역은 上階, 中階, 下階로 구분하는데, 石獸는 上階의 곡장 안에 배치한다.<sup>5</sup> 石羊과 石虎는 상계에 남쪽부터 石羊→石虎 순으로 번갈아 배치하는데, 石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총8마리를 배치한다. 시선은 石馬를 등지고 모두 바깥쪽을 향하면서 外護하고 있다. 이는 죽은 왕과 가깝게 배치하여 재앙을 막는 辟邪의 역할을 강조한 배치라고 해석된다 (도 1).

石馬의 경우는 배치와 상징이 다소 다르다. 石馬는 중계와 하계에 배치하는데,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를 향해 있다. 또 石

人의 뒤에 후진 배치하여 文石人과 武石人이 언제든지 말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군대 의장의 의미이다. 따라서 石馬는 辟邪보다는 왕을 守護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石馬는 건국 초에 배치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종 24년(1442)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sup>6</sup> 즉 태조 健元陵(1408), 정종 후릉(1420), 태종 헌릉(1422) 조성당시에는 제작하지 않았다가 세종 23년(1441) 세종의 세자빈인 顯德嬪(1418~1441)의 묘 조성을 계기로 추가 제작된 것이다.<sup>7</sup> 이로 인해 세종 24년에 石馬가 추가 설치될 때에는 明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sup>8</sup>

그런데, 건원릉은 고려 공민왕 玄正陵(1365~1374 완성)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고려 공민왕릉은 元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元과 같이 石獸 종별 중 石馬가 설치되지 않았

5 上階, 中階, 下階는 원래 계단석을 일컫는 말인데, 구역으로 보기도 한다. 『厚陵修改都監儀軌』에 의하면 ‘남면은 3階인데, 上階는 높이가 1척이고, 남북 너비가 14척이며 동서 길이가 55척 5촌이다. 中階는 너비가 21척인데, 높리와 길이는 上階와 같고, 下階는 너비가 27척이며, 높리는 2척 7촌이고 지대석과 만석이 갖추어졌다. 길이는 상계와 같고, 남쪽, 동쪽, 서쪽에는 각각 작은 돌층계(石梯)가 있다’ 『厚陵修改都監儀軌』 丙午十一月初十日 別單, 어람용 외규장각 coreen 2654, 1667.(국립문화재연구소,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풀어쓴 후릉수개도감의궤』, 2008).

6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제도의 성립과 石人, 石獸 양식 연구」, 『美術史論壇』29(한국미술연구소, 2009), pp. 178-179.

7 『世宗實錄』卷93, 23年(1441) 8月 8日 壬申條.

8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 왕릉 석물 규정은 北宋代 황제릉에 준하여 石馬를 추가하여 정립한 것이라 보았다. 이정선, 앞의 논문(2009), pp. 176-179.

다.<sup>9</sup> 원의 황제릉은 능침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潛埋방식을 사용하였고, 남송 황실은 임시 능원인 ‘攢宮’만 건설하였기 때문에 元과 南宋 황제릉 앞에는 石刻은 설치하지 않았다.<sup>10</sup> 반면에, 원대나 남송대 品官 묘에는 石刻을 설치하였고, 이는 공민왕릉과 비교가능하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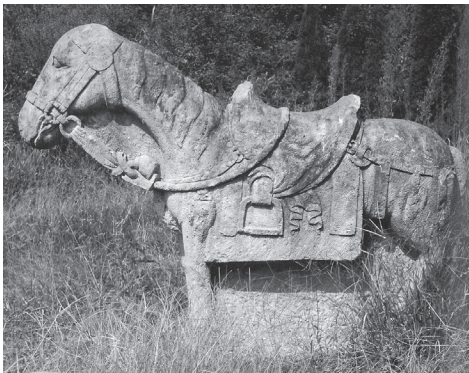
라서 중국 元代 및 南宋代 품관 묘와 공민왕릉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 2 〈石羊〉(좌, 높이115cm)과 〈石虎〉(우, 높이 150cm) 元, 北京石刻藝術博物館, 『北京文物精粹大系石雕卷』(北京出版社, 1999), pp. 120-123.

원대 품관 묘 石刻으로는 江蘇省 溧陽市에 있는 廣東道轉運鹽使合刺普華(1245~1284) 墓 石刻이 있다. 이 묘에는 文石人 1쌍, 武石人 1쌍, 石羊 1쌍, 石虎 1쌍이 남아있는데, 元代 『大元通制』(1338)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다.<sup>11</sup> 즉 원대 품관 묘 石刻에는 石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石人과 石羊, 石虎만 설치하였다(도 2).

반면에, 남송대 품관 묘 石刻에는 石羊, 石虎는 물론 石馬도 설치되었다. 중국 浙江省 臨安 근처 鄞州 宁波 東錢湖 주변에는 南宋 명문귀족가문인 史氏·周氏·王氏가문의 墓道 石刻이 남아있다. 그중 南宋 丞相 史浩(1106~1194)에는 文臣 1쌍, 武將 1쌍, 石馬 1쌍, 石虎 1쌍, 石羊 1쌍, 石柱 1쌍이 남아 있는데, 조각수법이 세장하고 치밀하다.<sup>12</sup> 그 중 石馬는 북송 황제릉에는 설치되었지만 품관 묘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南宋대에 와서 추가로 설치된 石刻



도 3 〈石馬〉南宋, 浙江省 東錢湖 지역 石刻, 『南宋石雕』(宁波出版社, 2006), p. 108.

<sup>9</sup> 선행 연구에서는 공민왕릉은 北宋의 묘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遼, 金, 南宋의 요소들이 보여진다고 하였다. 임영애, 『開城 恭愍王陵 石人像 研究』, 『講座美術史』17(미술사연구소, 2001), pp. 54-67.

<sup>10</sup> 杨寬, 『中國古代陵寢制度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08), pp. 66-67.

<sup>11</sup> 『大元通制』 一品用石人四事, 石柱二事, 石虎, 石羊二事 二品, 三品用石人, 石柱, 石虎, 石羊各二事, 四品, 五品用石人, 石虎, 石羊各二事 (夏寒, 『試論南京地區明初功臣墓神道石刻』, 『東南文化』總第205期(南京博物院, 2008年 第5期), p. 34. 재인용)

<sup>12</sup> 杨古城·龚国荣, 『南宋石雕』(宁波:宁波出版社, 2006), pp. 13-15.

이다.<sup>13</sup> 특히 남송대 石馬는 안장과 말다래로 치장하고 화려한 문양을 부조하였다<sup>14</sup>(도 3).

정리하면, 元(1206~1391) 품관 묘에는 石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南宋(1127~1279) 품관 묘에 이르러 石馬가 설치되었다. 고려 공민왕릉은 원대 제왕으로서의 지위를 지닌 친왕급 제도를 따르고 있다.<sup>15</sup> 이에 공민왕릉은 원대 친왕급 위계에서 石人과 石柱, 石虎, 石羊의 종별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공민왕릉의 영향을 받아 石羊, 石虎, 石人을 설치한 조선 건원릉의 석물은 중국 宋, 明과는 다른 개성있는 배치가 완성되었고, 높은 조각수준을 지니고 있어 의미가 깊다. 또한 조선 왕릉 石獸는 전체 석물 중 54%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으며, 석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배치하였다.<sup>16</sup> 따라서 많은 동물석이 배치되어있는 중국과 비교 가능한 결정적인 소재이다.

따라서 중국 황제릉과 비교하면서 조선 왕릉의 位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명나라 최초의 황제릉인 皇陵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明 皇陵은 太祖 朱元璋(1328~1398)의 부모인 朱世珍(1283~1344)의 릉으로 安徽省 鳳陽縣에 현전하고 있다.<sup>17</sup> 明 皇陵의 건설은 至正 26년(1366)에 이미 改葬을 하여 洪武 2년(1369)에 皇陵碑를 세우면서 본격화되었고, 홍무 12년(1379)에 완성하였다. 石刻은 1369년과 1379년 사이에 완성한 것이다.<sup>18</sup> 명 皇陵에는 麒麟 2쌍, 獅子 8쌍, 望柱 2쌍, 馬 2쌍, 馬官 4쌍, 虎 4쌍, 羊 4쌍, 品官 2쌍, 將軍 2쌍, 內官 2쌍이 있는데, 총



도 4 皇陵 전경, 明, 『明朝十九陵』(江苏美術出版社, 2009), p. 41.

<sup>13</sup> 夏寒, 앞의 논문, 2008, p. 34.

<sup>14</sup> 陈隍, 「鄞县东钱湖南宋神道石刻艺术初探」, 『东南文化』总第127期(南京博物院, 1999年第5期), p. 73.

<sup>15</sup> 역사학적 연구에서는 공민왕의 작제적 위계는 친왕이나 관료제적 위계는 1~2품의 위계를 부여받았다고 하였다. 정동훈, 「명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 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84(한국역사연구회, 2012), pp. 259-274.

<sup>16</sup> 조선 왕릉 석물의 연구대상은 총 73개소이다. 조선왕릉은 陵號 기준으로 42개소, 陵上 기준으로 73개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陵上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왕릉 51개소, 사적으로 지정된 왕실 관련 園과 墓가 22개소로 총 73개소이다. 일반적으로 석물 수량은 1개릉당 평균 21~22기를 설치하는데,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왕릉급의 園이나 墓의 경우 6~12기를 설치하기도 하여 총 왕릉 석물의 수량은 약 1,342기이다. 그 중 石獸는 약 728기에 달해 전체에서 54.2%의 비율이다.

<sup>17</sup> 胡汉生, 『图说 明朝帝王陵』, (北京:北京燕山出版社, 2006), pp. 14-20.

<sup>18</sup> 夏寒, 「试论明皇陵,孝陵神道石刻制度的形成」, 『中国国家博物馆馆刊』(北京:中国国家博物馆, 2013年3期), pp. 55-60.

32쌍이다. 명 皇陵은 북송 황제릉의 石刻 제도와 종류를 계승하였는데, 石羊, 石虎, 石馬는 北宋의 제도를 계승하되 南宋과 元 품관 묘를 참고하였다(도 4). 즉 명 皇陵은 조선 健元陵(1408) 이전에 조영된 황제릉으로 石羊, 石虎, 石馬가 모두 조성되었으나 그 외 여러 가지 石獸들이 함께 조영되어 조선 건원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주목할 만한 명 초기의 황제릉으로 명 祖陵이 있다. 祖陵은 주원장의 高祖父, 曾祖父, 祖父의릉이다. 홍무 18년(1385)에 황태자 朱標(1355~1392)에게 명을 내려 帝后의 冠服을 다시 장사지내면서 시작되어, 石刻은 홍무 20년(1387)에 완성된 것이며,<sup>19</sup> 영락 11년(1434)에 모두 완성하였다. 현재 江蘇省 盱眙縣에 위치하는데, 1680년 홍수로 흥택호에 300년동안 수몰되었다가 1976년이후 보수되었다. 잔존한 石刻들은 기린 2쌍, 사자 6쌍, 망주 2쌍, 馬倌 1쌍, 馬와 控馬官 각 1쌍, 馬 1쌍, 侍 1쌍, 品官 2쌍, 將軍 2쌍, 內官 2쌍으로 총 21쌍이다.<sup>20</sup> 이를 살펴보면 명 祖陵 석각은 조선 건원릉(14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석각이고, 石虎와 石羊을 설치하지 않았고 石馬만 잔존하였다. 따라서 石虎, 石羊을 설치하고 石馬를 설치하지 않은 조선 건원릉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명 태조 孝陵은 朱元璋(1328~1398)과 馬皇后(1327~1382)의 합장릉이다. 홍무 9년(1376)에 수릉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여 1398년 주원장을 합장하였다. 下馬坊은 홍무 26년(1393)에 완성하였고, 功德碑는 영락 11년(1413)에 완성한 것으로 보아 石刻은 그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명 孝陵의 석각은 사자 2쌍, 獬豸 2쌍, 낙타 2쌍, 象 2쌍, 기린 2쌍, 馬 2쌍, 망주 1쌍, 將軍 2쌍, 品官 2쌍으로 모두 17쌍이다. 다시말해 명 孝陵에는 석양, 석호 도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런데, 石馬의 도상은 조선왕릉과 유사하다. 즉 그 이전의 명 皇陵, 祖陵 石馬는 控馬官과 함께 조영되고 안장과 말다래를 세밀하게 부조하는 도상이었다. 그러나 명 효릉의 석마는 控馬官도 사라지고 안장 장식도 사라져 조선 건원릉 石馬와 유사하다. 건원릉 石馬가 1442년에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명대 품관 묘와의 비교도 중요하다. 선행연구는 주로 송·명대 황제릉과의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조선 국왕의 위격으로 보아 명대 품관 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1396년의 『明會典』에 의하면 품관인 公侯의 경우 石人 2쌍, 石馬 1쌍, 石羊 1쌍, 石虎 1쌍, 石

<sup>19</sup> 洪武二十年 建享殿, 配殿, 石象生. 『帝乡纪略』(江苏省地方編纂委员会 『江苏省志·文物志』, 南京:江苏古籍出版社, 1998, p. 147. 재인용)

<sup>20</sup> 胡汉生, 앞의 책, pp. 6-13.

<sup>21</sup> 夏寒, 앞의 논문(2013), pp. 60-62.



도 5 岐陽王陵 전경, 명, 필자촬영

望柱 1쌍이라고 규정하였다.<sup>22</sup>

이에 明 초기 개국공신인 李文忠(1339~1384) 岐陽王陵, 徐達(1332~1385) 中山王陵과 비교를 하고자 한다. 이문충은 태조 주원장의 조카로 1384년 죽은 이후 조정에서 왕으로 봉한 인물이다. 서달은 주원장을 도와 元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죽은 후에 명 개국공신에 명하고, 岐陽王으로 봉하였다.<sup>23</sup> 따라서 이들

무덤은 적어도 조성당시에는 왕릉급으로 조성된 무덤이다(도 5).

현지답사 결과, 명대 李文忠(1339~1384) 岐陽王陵은 1386년경에 石刻이 제작되었는데, 비교적 석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봉분과 香殿 아래에 神道가 길게 조성되었으며, 石人 2쌍, 石虎 1쌍, 石羊 1쌍, 石馬와 控馬官 1쌍(이중 1기는 미완성으로 현전), 석망주 1쌍, 신도비 1기가 배치되어 있다(도 1). 이러한 石刻의 실체는 『明會典』의 公侯격의 규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표 1〉을 보면 조선 건원릉(1408)은 石羊, 石虎, 石馬가 있는 北宋의 황제릉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현지조사 결과 북송 황제릉과는 격차가 심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이다. 그러나 명대의 규정과 개국공신릉인 岐陽王陵(1386)이나 中山王陵(1385)의 실체가 유사하여, 명대 諸王陵격으로 조영되었다고 보인다.

조선 초기 조선 국왕의 위계는 책봉을 받는 親王과 흡사한 지위이고, 관료제적 위계는 1~2품관의 위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明의 諸王이 지배영역이나 행정상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조선국왕은 자신을 수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국가와 완결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sup>24</sup> 따라서 중국 내의 친왕과는 다른 외국의 諸王의 대우로 조영되었다고 보인다.

<sup>22</sup> 『明會典』(위의 책, pp. 91-92. 재인용)

<sup>23</sup> 명초 개국공신은 중국 내의 親王 등의 諸王으로 책봉한 것이고, 고려와 조선의 국왕은 이와달리 자신의 영토와 신민을 온전히 보유한 외국의 군주이다. 최종석, 「조선초기 제후국 체제 운영의 특징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韓國思想과 文化』70(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p. 196.

<sup>24</sup> 정동훈, 「명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 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84(한국역사연구회, 2012), pp. 267-273.

표 1 중국과 조선의 석물 규정과 실제 비교<sup>25</sup>

종류	북송 『宋會要輯稿』			명 『明會典』			조선 『國朝五禮儀』	
	황제릉		품관묘	황제릉		품관묘	왕릉	묘
규정	宮人2 文官2 羊4 虎4 馬2 控馬官4 望柱2	武士2 武官2	石人 4 石羊 2 石虎 2	宮人 文官4 獅子4 酪駝4 麒麟4 望柱2	武官 功臣4 獬豸4 象4 馬4	石人 4 石馬 2 石羊 2 石虎 2 望柱 2	屏風 石羊4 石床1 長明燈 武石人2	欄干 石虎4 石望柱2 文石人2 石馬4
실제	(북송 영소릉) 宮人2 門獅2 武官4 羊4 馬4 瑞禽2 馴象人2	(남송 史浩) 武士2 文官4 客使6 虎4 控馬官8 象2	(명 皇陵) 石人 4 石羊8 石虎8 控馬官8 獅子16	(기양왕릉) 武官4 石羊8 石馬4 望柱4 麒麟4	(건원릉) 石人 4 石馬 2 控馬官 2 石羊 2 石虎 2 望柱 2	(월산대군) 屏風 石羊4 石床1 長明燈 武石人2	欄干 石虎4 石望柱2 文石人2 石馬4	石人 2 石床 1 長明燈 1 望柱 2 墓碑 1

결론적으로 조선 왕릉 석물은 의례상으로는 皇帝陵보다 낮은 諸王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442년 石馬가 추가될 때는 여러 古制를 종합하였는데, 선행 연구에서 주로 北宋의 황제릉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고 한 것에 비하여, 필자는 명의 『明會典』에 따른 公侯격에 의하여 조영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같은 위격인 명대 諸王陵처럼 신도 좌우에 석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陵上 위에 陵主 가까이 배치한 점이나 石獸 수량이 2배로 증가한 점, 규정에 없는 장명등과 병풍석, 난간석 등을 설치한 점은 조선만의 고유한 특성이 다(도 1). 즉 元代를 근간으로 한 공민왕릉과 明代의 영향을 받았지만 석물의 수량과 배치, 새로운 종별의 추가 등은 통일신라와 고려의 전통적인 문화를 결합시킨 것이다. 이는 조선 왕릉에서 외래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 Ⅲ. 조선 왕릉 石獸의 도상과 상징

조선 왕릉 石獸는 羊, 호랑이, 말의 도상이다. 이들은 환상속의 동물도상이 아니라 자연계에 실제 존재하는 동물도상으로 사후세계의 주요 조력자인 瑞獸를 상징한다.

<sup>25</sup> 杨寬, 앞의 책, pp. 90-92; 夏寒, 앞의 논문(2008), p. 34-37; 이정선, 앞의 논문, p. 177-178. 참조.



도 6 <岐陽王陵 石羊> 明, 필자촬영

## 1. 石羊

石羊의 도상은 立像이다. 네 다리를 쪽 펴고 서 있는 정면향인데,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된다(도 13). 立像은 태조 健元陵(1408)의 石羊 도상에 의한 것인데, 이는 고려 공민왕 玄正陵(1365~1374 완성)의 도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26</sup> 立像은 다리 사이를 뚫은 鑿形과 다리 사이를 뚫지 않은 非鑿形으로 분류되

는데, 다리 사이 面石에는 초화문을 새겨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 元代나 明代 石刻의 경우 무릎을 꿇은 跪像으로(도 6) 고려 玄正陵과 조선 왕릉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후기 사대부 묘에서 드물게 조성되었는데, 경기도 가평 李天輔(1698~1761) 묘나<sup>27</sup> 강원도 철원의 李昌誼(1704~1772) 묘 등에서 보인다.<sup>28</sup> 이는 石羊이라는 종별의 선정과 규제는 중국의 영향이지만 세부도상은 다르게 변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石羊의 상징성은 중국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며, 跪像보다 立像이 제작방식이 간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石羊 도상의 기원은 A.D. 1세기의 後漢시대 畫像石에서 나타난다. 서주에서 출토된 한나라 석실 화상석(徐州 漢畫像石藝術觀 소장)을 보면, 묘실 문위에 가로로 덧댄 門楣 상방에 양의 얼굴을 크게 부조하였는데, 후한시기 葬儀미술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소재이다. 양은 제사의식 때 물고기와 함께 제물로 바치는 ‘희생동물’을 상징하는데, 하늘과 땅이 교통하도록 돕는 동물이라는 뜻이다.<sup>29</sup>

또한 江蘇省 徐州 賈汪지구에서 출토된 후한시대 石羊은 등에 묘주를 태우고 하늘로

<sup>26</sup> 공민왕릉 이전의 왕릉은 북한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현재는 도판상으로도만 확인된다. 그 결과 공민왕릉, 칠릉떼 3릉, 4릉, 7릉에서 石羊의 설치가 추정된다. 장경희, 『고려 왕릉』(예맥, 2008), pp. 116-129; 김인철, 『고려 무덤 발굴보고』(백산자료원, 2002), p. 138; 今西龍, 『朝鮮古蹟調査報告』-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6), pp. 287-288.)

<sup>27</sup> 『경기묘제석조미술』下 조선후기 해설(경기도박물관, 2008), pp. 212-213.

<sup>28</sup> 조선시대 사대부 묘에는 원칙적으로 石羊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18세기중반~19세기초반에 사대부 묘에서 집중적으로 조형되고 있어 주목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京都條나 金堉(1580~1658)의 『潛谷遺稿』에 箕子廟에 꿰어얹은 石羊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조선 사대부 묘의 跪像 石羊은 중국의 영향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대부 묘에서도 跪像보다 立像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sup>29</sup> 고운, 『漢代 畫像石의 동물 도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p. 25-26.



도 7 〈仙人騎羊〉 後漢, 石, 높이138×길이140cm,  
徐州漢畫像石藝術館, 필자촬영

승천하는 모습으로 하늘과 연계되는 매개체로서의 상징성을 반영하였다(도 7).

무덤 밖 석조 조형물로서의 石羊 도상의 기원은 A.D.140년의 명문이 있는 孫仲喬 石羊이다. 이 石羊에는 목부분에 명문이 있는데, ‘효자 서환이 부모를 위하여 기원 후 140년에 만든 것으로 孫仲喬 등이 제작하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sup>30</sup> 이 石羊은 기원뿐만 아니라 ‘효도’라는 상징성을 명문으로 밝힌 중요한 조각이다.

정리하면, 石羊의 상징성은 孝와 吉祥을 의미한다. 무덤내부에서는 하늘과의 소통을 위한 제물로서의 희생, 묘주의 영혼을 하늘로 보내기 위한 승천, 악귀를 물리치는 神獸를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상서로움을 뜻하는 吉祥의 중국어 고어 발음인 ‘祥[xiáng]’은 양과 발음이 유사한 ‘羊[yáng]’으로 길상을 뜻하는 동음이의어이다.<sup>31</sup> 명대 皇陵의 石羊은 모두 귀상을 취하였고, 이는 무릎꿇고 젖을 먹는 부모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sup>32</sup> 그런데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양이 조성된 이유는 석각의 종별과 상징은 중국의 것을 수용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 한나라의 대유학자 동중서의 『春秋繁露』에 의하면 ‘양은 뿔이 있으면서도 멋대로 굴지 않고, 다 갖추고 있어도 쓰지 않으니 어진 이와 같다. 잡아도 소리 지르지 않고, 죽어도 울지 않으니 의로운 이와 같다. 어미의 젖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받아 먹으니 예를 아는 사람과 같다’고 한 바와 같이 양은 효도, 길상, 예의를 상징한다. 이는 성리학 적 예학이 발달한 조선의 정서와 잘 부합되고 있다.

## 2. 石虎

石虎의 도상은 蹲像이다. 蹲像은 엉덩이는 바닥에 앉고 앞다리를 꼰꼰이 세우고 있는 형상이다. 정면향으로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모두 동일한 도상이다. 蹲像 도상은 태조 健

<sup>30</sup> ‘孝子徐奐…永和五年太歲在庚□月九日 西郭記 子丁次漁 孫仲喬所作石羊….’ 中國陵墓雕塑全集編輯委員會, 『中國陵墓雕塑全集』3(西安:陝西人民美術出版社, 2009), p. 41.

<sup>31</sup> 林通雁, 「東漢三國陵墓雕塑藝術概論」, 『中國陵墓雕塑全集』3(中國陵墓雕塑全集編輯委員會, 2009), pp. 22-24.

<sup>32</sup> 王磊, 「明皇陵石獸的象徵意義」, 『貴州師範學院學報』第28卷 第11期(2012), p. 29.

元陵(1408)의 石虎에 의한 것인데, 이는 고려 공민왕 玄正陵(1365~1374 완성)의 도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준상의 石虎는 중국 元代 14세기 北京石刻藝術博物館 소장의 〈石虎〉나<sup>33</sup> 명대의 皇陵(1366~1379년 완성) 〈石虎〉,<sup>34</sup> 명 개국공신 岐陽王陵 〈石虎〉, 中山王陵 〈石虎〉의 준상 도상과 동일하다(도 8).

무덤 앞 石虎의 기원은 前漢 B.C.117년경 郭去病의 묘 앞 伏虎이다. 이 石虎는 네 다리를 모두 바닥에 바짝 대고 엎드린 자세의 도상이다. 이러한 자세는 元, 明代 石虎와는 차이가 있지만 무덤 앞 石虎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石虎는 원래 무덤부장품으로 제작되어 진묘수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鎮墓는 死者의 영혼승천을 막는 모든 방해요소의 제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鎮墓는 벽사의 일환으로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한편, 산릉도감의궤에서도 유사한 호랑이의 蹲像 도상이 있다.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1649),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1673)의 白虎圖와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도 9)



도 8 〈中山王陵 石虎〉 明, 필자촬영



도 9 〈白虎圖〉『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장서각, 1649)

33 『北京文物精粹大系 石雕卷』, 北京文物精粹大系 編委會(北京:北京出版社, 1999), p. 156.

34 『大明帝陵圖鑑』, 劉金星 等編(南京:江蘇古籍出版社, 2002), p. 41.

이 산릉도감의궤의 백호 도상은 四獸圖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도상이며,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다른 立像과 달리 존형의 도상으로 그려진 이유는 의궤를 옆으로 돌려서 그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세로 면의 화면에 맞추어 그려야 하는 새로운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백호를 묘사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호랑이의 형상을 차용하여 그린 것으로 보았다.<sup>35</sup> 이는 陵上에 설치된 石虎 도상이 의궤 四獸圖에 영향을 준 것인데, 山陵에 참여한 畫員이 석물 起畫도 하고, 의궤의 四獸圖도 그렸던 작업공정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실제로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1649)에는 造成所 소속 畫員 洪敬民 외 4인, 畫僧 信謙 외 11명과, 실제 석물의 起畫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右浮石所 소속 韓善國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sup>36</sup>

정리하면, 石虎의 상징성은 辟邪와 鎮墓를 의미한다. 악귀를 물리치는 鎮墓獸로서의 역할이고, 무덤을 수호하는 용맹한 神獸로 확대되었다. 중국 유교경전인 『周禮』의 기록에 의하면 ‘도깨비 형상의 방상시는 망자의 간과 뇌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호랑이와 측백 나무를 두려워하여 이를 세웠다’고 하며,<sup>37</sup> 이로 인해 石虎는 辟邪를 상징하는 대표 도상이 되었다.

### 3. 石馬

石馬의 도상은 立像이다. 石羊과 동일하게 네 다리를 쪽 펴고 정면향으로 서 있다. 다



도 10 〈孝陵 石馬〉明, 필자 촬영

른 石獸와 마찬가지로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도상의 변화가 없다. 다만 石羊과 石虎는 태종 8년(1408)에 만든 태조 健元陵의 도상에서 기인하지만 石馬의 도상은 세종 24년(1442) 일괄로 만든 健元陵, 齊陵, 獻陵의 도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명대 초기 공신왕릉의 도상보다 명 孝陵의 石馬 도상과 더 유사하다(도 10). 그리고 石馬는 고려 공민왕 玄正陵(1365~1374 완성)에는 조성하지

<sup>35</sup> 윤진영, 「조선왕조 산릉도감의 四獸圖」,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07), pp. 485-486.

<sup>36</sup>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右浮石 畫員 韓善國(적상산사고, 장서각 K2-2367, 1649)

<sup>37</sup> 王蔚波, 「中国古代虎形石雕」, 『中华文化画报』(2010), p. 58.



도 11 <岐陽王陵 石馬와 控馬官> 明, 필자 촬영



도 12 <岐陽王陵 石馬 안장 장식> 明, 필자 촬영

않아 고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무덤 앞 石馬의 기원은 前漢 B.C.117년 경 郭去病的 묘 앞 匈奴馬踏像이다. 흉노를 밟고 있는 말의 형상인데, 흉노 퇴치의 공을 세운 광거병의 기념비적인 성격을 보인다. 아울러 四川 漢墓에서 출토된 綿陽博物館 소장 <騎馬俑>에서 보이듯이 前漢시기부터 말을 타고 영혼이 승천하는 모습의 도상이 많이 제작되었다.<sup>38</sup> 특히 당태종(599~649)의 昭陵 六駿馬의 부조상은 당 태종이 전쟁에서 타고 다니던 애마들로 안장과 말다래와 각종 무기를 장착한 도상으로 늙름한 기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죽은 왕의 영혼을 모시는 의장군대를 상징하고 있다.<sup>39</sup> 그런데, 명대 초기의 능묘의 石馬에는 말고삐를 쥐고 있는 控馬官의 도상이 존재한다(도 11). 명대 황제릉과 크게 다른 점은 명 皇陵(1366~1379완성)과 祖陵(1387년경)에는 石馬 좌우에 控馬官이 2인이라는 점이고, 李文

忠(1339~1384) 岐陽王陵과 徐達(1332~1385) 中山王陵의 경우 石馬 좌우에 控馬官이 1인이고, 안장과 말다래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도 12).

그런데, 명 孝陵(1393~1413년경)에는 控馬官이 소멸되고 화려한 안장문양도 없어지는데, 명 永樂帝(1402~1424재위) 이후 品官 묘의 石馬에도 控馬官이 사라지고 안장 문양도 사라진다.<sup>40</sup> 이러한 도상의 변화 원인은 명 영락제 이후 鞍馬出征과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천하통일을 이루어 시국이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41</sup>

그런데 1442년 이후에 조성된 조선의 石馬 도상은 控馬官이나 말의 안장장식이 없다. 이는 北宋이나 명 제후릉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고 명 孝陵 이후의 도상을 따른 것이라

<sup>38</sup> 王蔚波, 앞의 논문, p. 58.

<sup>39</sup> 王磊, 앞의 논문, p. 29.

<sup>40</sup> 夏寒, 「试论南京地区明初功臣墓神道石刻」, 『东南文化』总第205期(南京博物院, 2008年 第5期), pp. 35-36.

<sup>41</sup> 王磊, 앞의 논문, p. 29.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능묘 石馬의 상징성은 하늘로의 昇天, 守護를 상징한다. 수호의 진묘수로서, 영혼을 하늘로 승천시키는 의미이며 왕의 의장군대, 즉 권력과 수호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조선 왕릉 石馬는 세종대에 뒤늦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石人의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수호와 위엄의 상징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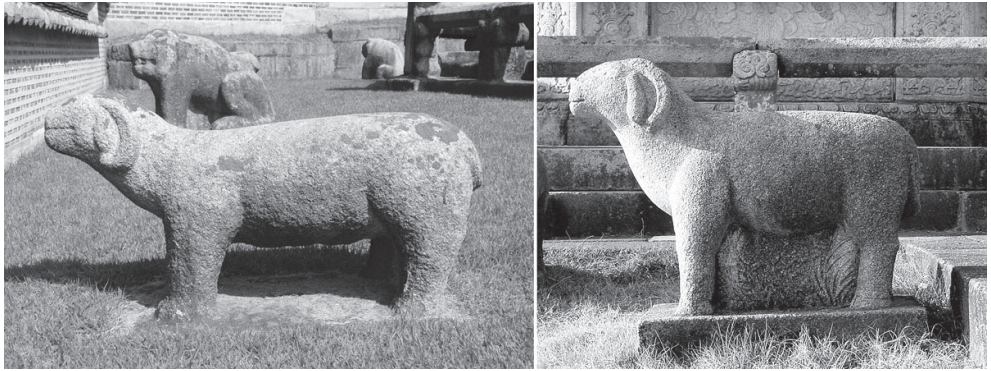
#### IV. 조선 왕릉 石獸의 양식 변천

조선 왕릉 石獸는 양식의 변천에 따라 총5기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 왕릉 석물은 屏風石, 石欄干, 石望柱, 石羊, 石虎, 石人, 石馬, 長明燈, 表石 등이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양식의 흐름이 유사하다. 석물의 시기구분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으며,<sup>42</sup> 石獸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石獸를 만든 匠人의 특성과 사회적 지위 변동이 양식에 미친 영향, 석각간역에 새로운 계층이 참여하는 등 작가군의 변화가 양식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1408~1499)는 15세기 초반~15세기 말기까지이다. 왕조는 주로 태종대부터 연산군대까지이고, 왕릉은 태조 健元陵(1408)과 神懿王后 齊陵(1408)부터 예종 昌陵(1470)까지이다. 대표 작품은 健元陵(1408), 獻陵(1420~1422), 顯陵(1452), 光陵(1469), 英陵(1469) 등이다. 제도적으로는 1474년 『國朝五禮儀』가 반포되어 왕릉제도의 법제화를 완성하였는데, 왕릉 석물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담겨있어 조선시대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제1기는 조선 왕릉 石獸의 기준이 되고 도상이 정립되는 시기이다. 양식은 자연스런 신체비례와 부드러운 곡선미가 특징이다(도 13). 대표작품인 태조 <健元陵 石羊>은 머리를 높이 들어 앞을 주시하고 있으며 유선형의 신체이다. <恭愍王陵 石羊>과 매우 유사한데, 원만한 얼굴에 표정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다른 石獸 및 石人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감상미술이 아닌 실용미술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었지만 시선의 흐름이 끊기지

<sup>42</sup> 조선 왕릉 석물의 양식 변천은 김민규,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미술사학연구』 274(한국미술사학회, 2012); 김은선, 「조선 왕릉 十二支神像 연구」, 『동악미술사학』15호(동악미술사학회, 2013); 김은선, 「朝鮮 後期 王陵 石人 彫刻 研究」, 『미술사학연구』249(한국미술사학회, 2006); 이정선, 앞의 논문(2009); 전나나, 「朝鮮 王陵 石人像 研究」, 『동악미술사학』12(동악미술사학회, 2011). 참조.



도 13 <健元陵 石羊>(좌, 1408, 필자 촬영)과 <恭愍王陵 石羊>(우, 1374년 완성, 소재구 제공)

않고 응집되어 울동감이 있다(도 13).

健元陵 石獸와 恭愍王陵 石獸가 유사한 원인은 제작방법의 영향때문이다. 건원릉의 축조를 책임진 都監提調는 朴子淸(1359~1423)인데 그는 공민왕릉을 감역하였던 金師幸(?~1398)과 神德王后 貞陵(1397) 조영에 관여한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sup>43</sup>

제2기(1495~1600)는 대부분 16세기이다. 왕조는 주로 중종대부터 선조대까지이고 왕릉은 성종 宣陵(1495)부터 明宗 康陵(1567)까지이다. 대표 작품은 禧陵(1515천릉), 중종 靖陵(1562), 문정왕후 泰陵(1565) 등이다. 제도적으로는 명나라의 『大明會典』을 1518년에 수입하여 五禮를 보완·수정하였고, 사회적으로는 士林의 진출로 주자가례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도 14 <舊禧陵 石虎> 1515년, 단국대 석주선 박물관, 필자 촬영)

제2기의 양식은 거대화되어 위압적이고 조각이 돌출감이 높아 매우 활기차다. 인종 孝陵(1545) 石獸와 명종 康陵(1567) 石獸는 조선왕릉 중 가장 크게 제작되어,<sup>44</sup> 石獸의 辟邪와 守護의 상징성을 극대화시켰다. 반면 거대화되었음에도 石人 등의 다른 석물과는 조화로우며, 통일

<sup>43</sup> 임영애, 「개성 공민왕릉 石人상 연구」, 『강좌미술사』17(미술사연구소, 2001), pp. 54-55.

<sup>44</sup> 인종 孝陵의 石羊은 189(길이)×72.1(너비)×104.7(높이)cm, 石虎는 185.3×85×115.9cm, 石馬는 186.8×80×120.6cm이다. 명종 康陵의 石羊은 182.4×82.6×105.2cm, 石虎는 190.4×84×111.3cm, 石馬는 184.2×64.7×118.5cm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綜合學術調查報告書』IV(2013), pp. 76-173.

성 있는 장인의 솜씨가 돋보인다. 그 원인은 이 시기 대표작 중 하나인 1515년 舊 禧陵의 제작방식에서 찾고자 한다(도 14). 『中宗實錄』에 의하면 舊 禧陵을 제작한 石手 匠人은 石工 尹得孫과 都石手 朴繼成이다.<sup>45</sup> 이를 통해 16세기에는 산릉도감 浮石所를 대표하는 石手の 우두머리는 ‘都石手’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崇禮門 上樑文 목서명에는 세종 31년(1449)의 기록이 나오는데, 승례문의 石役을 책임진 石手는 都石手 司直 申乃行과 左邊石手 李義成, 右邊石手 朴永南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6</sup> 즉 조선전기 石手 일의 우두머리는 ‘都石手’라는 책임자가 있고, 그 하부에 左邊石手와 右邊石手로 세분화된다. 조선전기 都石手는 司直이라는 관직을 제수받았는데, 司直은 정5품 무관의 관직에 해당된다. 1537년 중종실록 기록에 ‘都石手’ 용어가 아직 남아 있어 이를 추정해 보면, 조선 전기 관청급 石役의 우두머리인 都石手는 다른 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작업과정에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도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한다.<sup>47</sup> 이로 인해 16세기 禧陵(1537) 등의 석물들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세부가 잘 정돈되었음은 山陵 石役의 체계적인 조직과 관직을 제수하는 사회적 우대에서 기인한다.

제3기(1601~1730)는 17세기~18세기 전반까지이다. 왕조는 주로 인조대부터 숙종대까지이고 왕릉은 懿仁王后 穆陵(1601)부터 宣懿王后 懿陵(1730)까지이다. 대표 작품은 顯宗 崇陵(舊 寧陵, 1659), 孝宗 寧陵(1673), 仁顯王后 明陵(1701) 등이다. 제도적으로는 金長生이 예학을 집대성하여 집필한 『家禮輯覽』이 보편화되고, 사회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반복되는 대기근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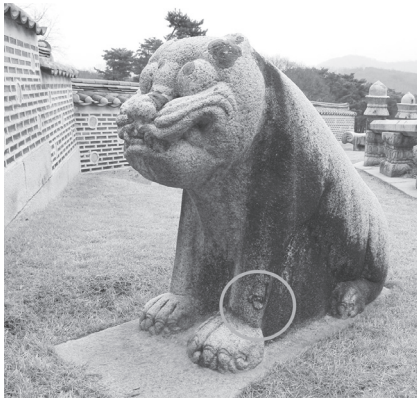
제3기의 양식은 편차가 심하다. 장인 개인별 역량에 따라 우수한 조각이 조성되기도 하는가 하면, 비례가 불안정하고 평면적이고 도식화가 심화되는 등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 반면 仁顯王后 明陵(1701)부터 석물크기가 대폭 축소되고, 숙종대 후반부터 세부묘사는 구체화되면서 윤곽이 또렷해진다. 1681년의 仁敬王后 <翼陵 石虎>의 경우 고양이과

<sup>45</sup> ‘禧陵을 옮기는 것에 대하여 삼공이 아뢰다. …石工 尹得孫은 ‘金井을 만들고 한 길 가량을 파니 큰 돌이 산맥에서 곧게 뻗어 가로 놓여 있었으므로 石工들이 힘을 다해 파내고 있었습니다. … (『中宗實錄』卷84, 32년(1537) 4月 23日 辛未條)

‘…나는 石物 만드는 곳에 매달렸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고 都石手 朴繼成이란 사람이 전담하여 했습니다.’ 그때의 都石手 朴繼成을 불러다가 타이르기를… (『中宗實錄』卷84, 32년(1537) 4月 27日 乙亥條)

<sup>46</sup> 『崇禮門 上樑文世宗 31年(1449) ‘大木 司直 崔建口 都石手 司直 申乃行 … 左邊石手 李義成 等十四 邊石手 朴永南 等十四…’ 김동욱, 18세기 건축장인의 성장과 화성 축조, 『건축장인의 탐과 꿈』(국립민속박물관, 1999) p. 179. 재인용.

<sup>47</sup> 김동욱, 위의 논문, pp. 180-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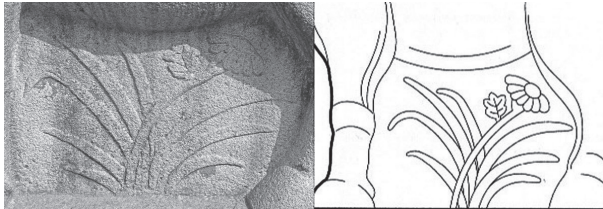


도 15 <翼陵石虎> 1681년, 필자 촬영

동물에서 보이는 퇴화된 머느리발톱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호랑이그림의 발톱표현과 동일하다. (도 15)

세부표현의 구체화는 山陵 石物 제작방식에서 화원의 역할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전반기 山陵에 참여한 화원에 관한 기록은 전체 座目이나 賞典, 大浮石所의 座目 등에서 이름만 언급되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반면 1659년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에는 ‘畫員 李起龍 石物起畫臨時出去’,<sup>48</sup> 1701년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에는 ‘畫員 張子房 石物起畫’,<sup>49</sup> 1718년 『愍懷嬪封墓都監儀軌』에는 ‘畫員 崔壽億 大浮石所 石物起畫’ 라는<sup>50</sup> 구체적인 실무를 기록하고 있다.<sup>51</sup> 즉 왕릉 석물 밑그림을 도화서 畫員이 맡았다는 것이며 이는 석물 도상과 양식에 반영되었다.

顯宗 崇陵 石獸는 舊 寧陵의 石獸를 재조탁한 것으로 1659년에 제작된 것이다.<sup>52</sup>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유명한 도화서 화원인 李起龍이 起畫하였다.<sup>53</sup> 실제로 <崇陵 石馬>를 보면 다리 사이에 꽃을 부조하였는데, 조각작품이지만 회화성이 강하고 세밀하다. 특히 이 작



도 16 <崇陵 石馬의 문양>과 도면, 1659년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 400.

품은 石手 曹子龍이 都邊首를 맡아 제작한 것으로 그는 1648년에 정3품 通政大夫로 제수되기도 한 실력자이다. 따라서 승릉 石獸는 세부표현이 풍부한 우수한 조형물로 제작되었다(도 16).

48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座目(규장각奎15075, 1659)

49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座目(장서각 K2-2327, 1701)

50 『愍懷嬪封墓都監儀軌』座目(규장각奎14837, 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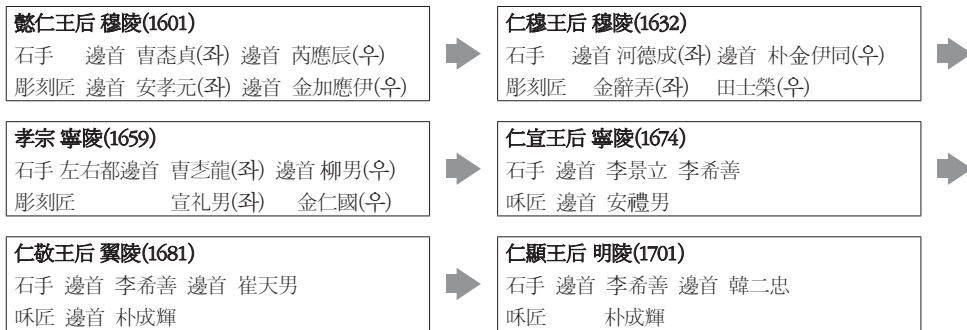
51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畫員』, 『미술사연구』9(미술사연구회, 1995), pp. 223-228.

52 김민규,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미술사학연구』 274(한국미술사학회, 2012), pp. 63-64.

53 畫員 李起龍(1600~?)은 도화서 화원으로 1627년 昭顯世子の 嘉禮都監, 1630년 宣祖穆陵遷奉都監, 1632년 仁穆王后山陵都監, 1645년 昭顯世子殯宮都監 등에 참여하였다. 『韓國歷代書畫家事典』下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 1591.

제3기의 주요 특징은 匠人 역할의 변화이다. 조선전기 장인의 우두머리 호칭인 都石手が 사라지고 대부분 左右邊首나 邊首로 변화한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장인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sup>54</sup> 즉 조선전기에는 左邊石手, 右邊石手 위에 都石手が 있어서 전체를 총괄하였지만, 17세기 이후 전체총괄자인 都石手, 都邊首는 1659년 孝宗 寧陵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표 2>의 邊首 계보를 보면, 石手邊首, 彫刻匠邊首만 있고 이들을 총괄하는 都石手, 都邊首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작품은 통일성이 없고, 편차가 심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부조각을 담당하는 彫刻匠의 경우 邊首직위가 점점 사라져 彫刻匠의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 17세기 大浮石所 石手와 彫刻匠·味匠 邊首의 계보<sup>55</sup>



한편, 제3기에 석물의 세부 조각을 담당한 彫刻匠의 명칭이 변화되었다. 大浮石所의 匠人은 크게 石手와 彫刻匠으로 나뉘는데, 石手는 돌의 부출, 재질 선택, 형태 제작, 석물 배설을 맡고, 세부 조각은 彫刻匠 또는 味匠이 담당하였다.

味匠이란 세밀한 조각을 하는 장인이라는 뜻으로 1673년 『孝宗寧陵山陵都監』이후 彫刻匠에서 味匠으로 용어가 변한다. 다루는 재료에 따라 『經國大典』에서는 金銀帶를 만드는 匠人,<sup>56</sup> 『百憲摠要』에는 玉을 다루는 양지옥 匠人 등을 ‘섭장’이라 불렀다. 그동안 선행연구에는 대부분 이 명칭을 ‘화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는 순수 우리말을 한자로 표시할

<sup>54</sup> 김동욱, 앞의 논문, pp. 186-187.

<sup>55</sup> 邊首 표기가 없는 匠人은 工匠秩 가장 상단에 기록된 인물이다.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左右浮石所, 규장각奎:14826, 1601;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左浮石 員役/右浮石 員役, 춘추관, 규장각奎13517, 1632; 『(孝宗)山陵都監儀軌』左浮石所 員役工匠秩/右浮石所 員役工匠秩, 규장각奎15075, 1659; 『(仁宣王后)山陵都監儀軌』大浮石所 工匠秩, 적상산사고, 장서각 K2-2322, 1674; 『(仁敬王后)山陵都監儀軌』大浮石所 工匠秩, 적상산사고, 장서각 K2-2324, 1681;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大浮石所 工匠秩, 장서각 K2-2327, 1701.

<sup>56</sup> 『經國大典註解』京工匠條(정공식 외 역,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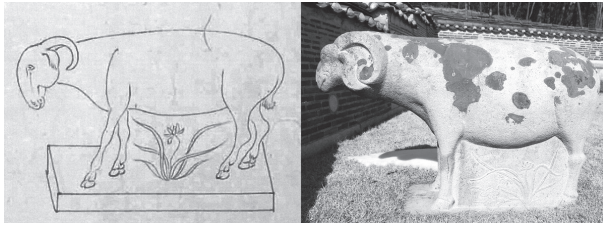
때 빌려쓴 차자 표현이다.<sup>57</sup> 즉 ‘섭장, 쉼장’이라는 우리말 어휘를 한자로 쓸 때, ‘和’의 고어인 ‘呒’로 차자 표기한 것으로, 읽을 때는 ‘섭장’으로 읽고자 한다.<sup>58</sup>

제4기(1739~1903)는 대체로 18세기 중반~19세기까지이다. 왕조는 주로 영조, 정조, 순조대까지이고 왕릉은 端敬王后 溫陵(1739)부터 孝定王后 景陵(1903)까지이다. 대표 작품으로는 眞聖王后 弘陵(1757), 仁元王后 明陵(1757), 文孝世子 孝昌園(1786), 사도세자 隆陵(1789), 正祖 乾陵(1800) 등 조형성이 일등한 작품이다. 제도적으로는 『國朝喪禮補編』(1758)을 반포하여 변화된 의례를 법제화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영·정조대의 문예부흥정책이 활발하였다.

제4기의 양식은 사실주의이다. 신체비례는 안정적이고 표면은 세련된 곡선으로 유연하며, 세부는 섬세하고 사실적이다. 규모는 숙종의 석물 간소화 遺敎이후 더욱 작아지고 종별을 줄였고, 石獸의 안면묘사는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마치 모델을 두고 조각한 것처럼 치밀하며 감각적이다. 健陵 石獸(1800)는 『健陵山陵都監儀軌』圖說과도 유사하며, 조각은 그림처럼 섬세하여 회화성이 짙다(도 17).

주목할 점은 健陵의 경우 差備待令畫員인 朴維城(1745~1816이후)이 石刻 看役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sup>59</sup> 자비대령화원은 정조 7년(1783)에 설치된 제도로 도화서 화원 중 뛰어난 10명을 선발하여 국왕 직속의 궁중 화원으로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sup>60</sup> 따라서 건릉

石役に 자비대령화원 石刻 看役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은 사실묘사가 또렷해지고 화려한 장식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완성되는 데 일조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18세기 화원화가 작품이 묘사가 또렷하고 장식



도 15 <健陵 石羊 圖說>(좌)와 <健陵 石羊>(우, 1800년, 『健陵山陵都監儀軌』)

<sup>57</sup> 황금연, 「儀軌類의 漢字借名表記 研究」(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p. 11-12.

<sup>58</sup> 의궤 고유명사 중에서 한자의 차명표기는 혼용되고 있어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필자는 ‘呒匠’의 경우 차명 표기에만 보이는 차자이고, 세밀한 조각을 하는 장인이라는 뜻의 용어는 ‘섭장’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섭장으로 읽고자 한다.

<sup>59</sup> 『健陵山陵都監儀軌』下, 嘉慶五年庚申七月日 大浮石所儀軌 石刻看役 畫員 朴維城 (정족산성, 규장각奎13642, 1800). 朴維城은 중인 화가집안 출신으로 순조대 差備待令畫員이 되었으며 李寅文, 金弘道와 절친한 친구이고, 당시는 정5품의 副司果였다.

<sup>60</sup> 강관식, 「조선 후기 화원 회화의 변모와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제도」, 『미술사학보』 17(미술사학연구, 2002), pp. 8-12.

화된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sup>61</sup>

또한 화원이 직접 조각을 하기도 하는데,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에 의하면 세부 彫刻을 담당했던 味匠의 명단에 金德齡이 나오는데 그는 畫師를 겸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懿昭世孫 懿寧園의 회화성 짙은 양식을 초래하였다.<sup>62</sup> 아울러 懿寧園은 무관출신 공예가인 崔天若이 監董한 작품이기도 하다.<sup>63</sup> 따라서 의령원은 공예품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석물이 만들어졌다. 반면 지나치게 규모가 작아 陵墓 石獸 본연의 위엄과 수호의 상징적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17세기 중반이후 彫刻匠 邊首가 사라지면서 조각장의 역할이 축소 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제5기(1901~1926)는 대한제국 시기이다. 왕조는 고종부터 순종대이고, 陵은 高宗 洪陵(1919완성)부터 純宗 裕陵(1926) 2개소이다. 제도적으로 황제를 선포했던 시기이므로 전통 왕릉의 형식 대신 중국의 황제능침제도를 표방하였다. 특히 裕陵은 일본 조각가 아이바 히코지로(相羽彦次郎)가 제작한 것으로 입체감이 강한 서양풍의 근대조각이다.<sup>64</sup>

이상 제1기부터 제5기까지 양식의 흐름을 살펴보고, 특히 匠人 조직의 변화나 사회적 대우 등의 배경이 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고찰하였다.

## V. 맺음말

조선 왕릉 석물은 왕실 석조예술의 정수이다. 감상조각이 아닌 실용조각으로 보수화 되고 정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릉 石物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조각사 중 왕릉의 상징성, 사실성을 응집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이다. 그중 石獸는 가장 강렬하고 활기차며 辟邪의 추상성을 이미지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조선 전기에 제한되었거나 특정 왕릉의 石獸로 한정된 것에 비하여 조선 전시기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주로 明 孝陵이나 明十三陵과의 비교만 시도하였던 것과 달리 중국 明 초기 皇陵, 祖陵, 孝陵과 개국

<sup>61</sup> 강관식, 「眞景時代 後記 畫員畫의 視覺的 寫實性」, 『간송문화』49(간송미술관, 1995), pp. 86-87.

<sup>62</sup>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大浮石所 工匠秩 味匠 金德齡 兼 畫師 (외규장각 어람용 coreen2512, 1752)

<sup>63</sup> 崔天若은 원래 동래출신 무관으로 肅宗 玉寶, 銅人 등을 제작했던 공예가면서 자명종수리, 건축, 능묘석물 등에서도 활약을 했던 천재적인 인물이다. 김민규,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崔天若) 연구」, 『문화재』46권 제 1호(2013), pp. 126-136.

<sup>64</sup> 김이순, 『대한제국 황제릉』(소와당, 2010), pp. 214-218.

공신릉인 岐陽王陵, 中山王陵의 현지조사를 통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로인해 조선 왕릉 석물은 의례상으로는 皇帝陵보다 낮은 諸王陵의 위격을 지녔으며, 1442년 石馬가 추가될 때는 北宋 皇陵의 영향을 받았다는 선행 연구와 달리, 明의 『明會典』에 따른 公侯격에 의하여 조영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양식의 변천에 따라 총 5기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石獸를 만든 匠人의 특성과 지위변동이 양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제1기와 제2기의 16세기 초반까지는 장인 石手의 우두머리에 ‘都石手’라는 책임자가 있고 그 하부에 ‘左邊石手’와 ‘右邊石手’로 세분화되어 작업하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장인의 공정이 세분화됨에도 불구하고 석물의 양식이 통일성을 유지되어 제1기의 자연스러운 양식과 제2기의 위압적이면서 돌출감이 강한 활달한 양식이 발달하였다. 제2기와 3기인 17~18세기 이후부터 장인의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데, 양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장인 石手의 우두머리인 ‘都石手’가 사라지고 대부분 ‘左右邊首’나 ‘邊首’로만 남게 되고 혹은 ‘石手邊首’나 ‘石手彫刻匠’은 있지만 이들을 총괄하는 都石手, 都邊首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彫刻匠의 경우 邊首지위가 사라져 조각장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작가별 역량에 따라 뛰어난 작품이 탄생되기도 하고, 평면적이거나 도식화가 심화된 작품이 나오기도 하여 편차가 심하다.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畫員의 石物起畫 등이 보다 확대되어 회화성이 짙고 사실성이 높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또한 화원들이 石刻 看役을 담당하거나 직접 조각을 하기도 하여 세련되고 감각적인 양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왕릉 石獸는 吉祥, 辟邪, 守護를 상징하고 있다.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였으며 중국의 외래 요소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보수성 강한 왕릉 석물을 활달하고 개성있는 작품으로 탄생시킨 독특한 미술이다.

\*주제어(Key Words)\_조선 왕릉(朝鮮 王陵,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석수(石獸, Stone Animals), 석양(石羊, Stone Sheep), 석호(石虎, Stone Tiger), 석마(石馬, Stone Horse)

■ 투고일 2014년 8월 22일 | 심사개시일 2014년 8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0월 12일 ■

## 참고문헌

### 1. 사료

『健陵山陵都監儀軌』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大明會典』  
『愍懷嬪封墓都監儀軌』  
『三才圖會』  
『承政院日記』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仁宣王后山陵都監儀軌』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顯隆園園所都監儀軌』  
『孝宗山陵都監儀軌』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 2. 논문

(국문)

강관식, 「조선 후기 화원 회화의 변모와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제도」, 『미술사학보』17, 미술사학연구, 2002, pp. 8-12.

\_\_\_\_\_, 「眞景時代 後記 畫員畫의 視覺的 寫實性」, 『간송문화』49, 간송미술관, 1995, pp. 86-87.

강우방, 「梨大博物館 所藏 돌 호랑이의 魔力」, 『우리 옛 돌조각의 힘』, 1997, pp. 17-23.

고운, 「漢代 畫像石의 동물 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p. 25-26.

김동욱, 「18세기 건축장인의 성장과 화성 축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pp.

179-187.

- 김동욱, 『朝鮮後記 建築工匠の 勞賃考』, 『대한건축학회논문집』1권 1호, 대한건축학회, 1985, pp. 53-61.
- 김민규, 「조선 18세기 조각가 崔天若 연구」, 『문화재』46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p. 126-136.
- \_\_\_\_\_,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미술사학연구』274, 한국미술사학회, 2012, pp. 63-64.
- 김은선, 「조선 왕릉 十二支神像 연구」, 『동악미술사학』15호, 동악미술사학회, 2013, pp. 145-150.
- \_\_\_\_\_, 「朝鮮後記 王陵 石人 彫刻 研究」, 『미술사학연구』249, 한국미술사학회, 2006, pp. 118-126.
- 김이순, 「莊陵과 思陵의 석물 연구-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文化財』제45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p. 38-49.
- \_\_\_\_\_, 「세종실록의 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36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pp. 94-98.
- 김환철, 「조선후기 왕릉 석물조영에 사용된 척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p. 161-175.
- 문영식, 「조선후기 山陵都監儀軌에 나타난 匠人의 造營活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p. 38-84.
-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畫員」, 『미술사연구』9, 미술사연구회, 1995, pp. 223-228.
- 배윤수, 「朝鮮時代 王陵 石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pp. 15-39.
- 윤용출,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pp. 225-236.
- 윤진영, 「조선왕조 산릉도감의 四獸圖」,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pp. 485-486.
-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p. 176-179.
- \_\_\_\_\_, 「조선 전기 왕릉제도의 성립과 石人, 石獸 양식 연구」, 『미술사논단』29, 한국미술연구소, 2009, pp. 171-192.
- 임영애, 「개성 공민왕릉 석인상 연구」, 『강좌미술사』17, 미술사연구소, 2001, pp. 54-67.
- 장경희, 「조선후기 산릉도감의 장인 연구」, 『역사민속학』25, 역사민속학회, 2007, pp. 142-149.
- \_\_\_\_\_, 「조선후기 凶禮 도감의 장인 연구」, 『미술사논단』8, 1999, pp. 189-196.
- 전나나, 「朝鮮 王陵 石人像 研究」, 『동악미술사학』12, 동악미술사학회, 2011, pp. 76-96.
- 정동훈, 「명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 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84, 한국역사연구회, 2012, pp. 259-274.
- 조인수,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 『미술사학연구』262호, 2009, pp. 78-90.
- 진홍섭, 『昭陵石虎』, 『藝林』창간호,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1968, pp. 34-37.

최종석, 「조선초기 제후국 체제 운영의 특징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7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pp. 196-197.

황금연, 「儀軌類의 漢字 借名 表記 研究」,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p. 11-12.

(중문)

杨晓春, 「关于南朝陵墓神道石兽的名称问题」, 『东南文化』总第209期, 南京博物院, 2009年 第3期

吴东升, 「论明孝陵神道石象生的艺术风格」, 南京大学 美术学科 硕士学位论文, 2012.

王磊, 「明皇陵石兽的象征意义」, 『贵州师范学院学报』第28卷 第11期, 2012.

王蔚波, 「中国古代虎形石雕」, 『中华文化画报』, 2010.

林通雁, 「東漢三國陵墓彫塑藝術概論」, 『中國陵墓彫塑全集』3, 中國陵墓彫塑全集編輯委員會, 2009 .

夏寒, 「试论南京地区明初功臣墓神道石刻」, 『东南文化』总第205期, 南京博物院, 2008年 第5期

夏寒, 「试论明皇陵, 孝陵神道石刻制度的形成」, 『中国国家博物馆馆刊』, 北京:中国国家博物馆, 2013年3期

### 3. 단행본

(국문)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하, 돌베개, 2001.

김연주, 『영건의귀류의 차자 표기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김인철, 『고려 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2.

문옥표 등 역, 『朝鮮時代 冠婚喪祭 喪祭篇(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汝信 主編, 전창범 역, 『중국조각사』, 학연문화사, 2005.

장경희, 『고려 왕릉』, 예맥, 2008.

(중문)

江苏省地方編纂委员会『江苏省志·文物志』, 南京:江苏古籍出版社, 1998.

杨宽, 『中國古代陵寢制度史』, 上海人民出版社, 2008.

胡汉生, 『图说 明朝帝王陵』, 北京:北京燕山出版社, 2006.

(영문)

Paludan, *Ann. Chinese sculpture: a great tradition*. Chicago: Marshall Cavendish Edition, 2007.

Luo Zhewen. *Chi na's Impetial Tombs & Mausoleums*. Foreign Languages Press, 1993.

Royal Ontario Museum. *Homage to Heaven, Homage to earth: Chinese Treasure of the Royal Ontario Museum*,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2.

Wu Hong, *The Art of the Yellow Springs: Understanding Chinese Tombs*.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2010.

#### 4. 도록·보고서

(국문)

경기도박물관, 『경기묘제석조미술』상·하, 경기도박물관, 2008~2009.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사자』,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풀어쓴 후릉수개도감의궤』, 2008.

\_\_\_\_\_, 『조선왕릉 綜合學術調查報告書』I~VI, 2009~2013.

\_\_\_\_\_, 『韓國歷代書畫家事典』上·下, 2011.

국립민속박물관, 『변신, 신화에서 생활로』, 국립민속박물관, 2010.

국립제주박물관, 『어흥, 우리 호랑이』, 2010.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호랑이 虎』, 1988.

영남대학교박물관, 『고대의 말, 신성과 실용』, 2002.

朝鮮總督府 今西龍, 『朝鮮古蹟調查報告』-高麗諸陵墓調查報告書-, 1916.

(중문)

치金星 等編, 『大明帝陵图鉴』, 南京:江苏古籍出版社, 2002.

明孝陵博物館 編, 『明朝十九陵』, 南京:江苏美術出版社, 2009.

北京文物精粹大系 編委會, 『北京文物精粹大系 石雕卷』, 北京:北京出版社, 1999.

杨古城·龚国荣, 『南宋石雕』, 宁波:宁波出版社, 2006.

中國陵墓彫塑全集編輯委員會, 『中國陵墓彫塑全集』1~4, 2009.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彫塑篇, 人民美術出版社, 1989.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北宋皇陵』, 中州古籍出版社, 1998.

## 국문초록

조선 왕릉 石獸란 石羊, 石虎, 石馬의 동물석을 말한다. 石獸는 왕릉을 수호하고 있는 가장 웅장한 조형물로 辟邪와 吉祥을 상징하고 있다. 그 중 石羊, 石虎는 왕릉 陵上 上階에 배치되며 봉분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총8마리를 배치한다. 시선은 봉분을 등지고 바깥쪽을 향하면서 外護하고 있다. 이는 죽은 왕과 가깝게 배치하여 재앙을 막는 辟邪의 역할을 강조한 배치이다.

조선 왕릉 石獸는 전체 石物의 조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로인해 중국과 비교가 가능하다. 가장 유사한 사례가 중국 명대 초기 개국공신인 李文忠(1339~1384) 岐陽王陵과 徐達(1332~1385) 中山王陵이다. 즉 조선 왕릉 石物은 의례상으로는 皇帝陵보다 낮은 諸王陵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명대 諸王陵처럼 신도 좌우에 石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陵上 위에 陵主 가까이 배치한 점이나 石獸 수량이 2배로 증가한 점, 규정에 없는 장명등과 병풍석, 난간석 등을 설치한 점은 조선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즉 조선왕릉은 元代를 근간으로 한 공민왕릉과 明代의 영향을 받았지만 石物의 수량과 배치, 새로운 종별의 추가 등은 통일신라와 고려의 전통적인 문화를 결합시킨 것이다.

石羊의 도상은 立像이고, 상징성은 孝와 吉祥을 의미한다. 무덤내부에서는 하늘과의 소통을 위한 제물로서의 희생, 묘주의 영혼을 하늘로 보내기 위한 승천, 악귀를 물리치는 神獸를 상징하기도 한다. 石虎의 도상은 蹲像이고, 상징성은 辟邪와 鎮墓를 의미한다. 악귀를 물리치는 鎮墓獸로서의 역할이고, 무덤을 수호하는 용맹한 神獸로 확대되었다. 石馬의 도상은 立像으로 상징성은 하늘로의 昇天, 守護를 상징한다.

조선 왕릉 石獸는 양식의 변천에 따라 총5기로 분류되는데, 세기별로 나눌 수 있다. 15세기는 왕릉 石獸의 도상이 정립되고 典範이 되는 시기이다. 태조 健元陵(1408)의 石獸가 대표적이며 자연스러운 신체비례와 부드러운 곡선미가 특징인 시기이다. 16세기는 거대화되어 위압적이고 조각이 돌출감이 높아 활기차다. 孝陵(1545) 石獸와 명종 康陵(1567) 石獸가 가장 대표적이며 辟邪와 守護의 상징성을 극대화시켰다. 17세기는 양감이 평면적이고 도식화가 심화되지만 반면, 세부묘사는 구체화되면서 윤곽이 또렷해진다. 仁敬王后 翼陵(1681)과 顯宗 崇陵(1659)이 대표작이다. 18세기는 문예 부흥시기로 사실주의 양식이 유행한다. 사도세자 隆陵(1789), 正祖 乾陵(1800) 등이 대표작인데, 신체비례는 안정적이고 표면은 세련된 곡선으로 유연하며, 세부는 치밀하고 감각적이다.

조선 왕릉 石獸는 吉祥, 辟邪, 守護를 상징하고 있어 왕릉 石物 중 최고 권력자의 권위와 위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즉 조선 왕릉 石物은 왕실 석조 예술의 정수로 중국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고유성이 결합하여 창출된 독특한 미술이다.

## Abstract

# Stone Animal Statues at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KIM Eun-Sun**\*

The stone guardians at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include figures of sheep, tigers, and horses. These majestic stone guardians, designed to protect the tombs, are symbols of auspiciousness. Among them, sheep and tigers are positioned on the right and left of the tombs, four on each side. To protect the tombs from attacks, these animals stand with their back to the tombs, watching over the surrounding area. Such an arrangement emphasizes their role of always standing by the dead king to prevent calamities.

The stone guardians of Joseon's royal tombs are closely related to many other stone sculptures of that era. Consequently, it is also possible to compare them with those of China. The most similar cases are the royal tomb of Li Wen Zhong (1339~1384), and the royal tomb of Xu Da (1332~1385), who contributed to the founding of the Ming Empire. In other words, the stone sculptures of Joseon's royal tombs are for lower ranked tombs than those of emperors. However, several elements differentiate the tombs of Joseon from those of Ming. First, Joseon's stone animals are placed on the sides of the tombs, near the dead kings, whereas those of Ming are locate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path leading to the tombs. Second, there are twice as many stone sculptures at Joseon tombs as there are at Ming tombs. Third, stone lanterns, folding screen stones and banister stones have also been found at Joseon's tombs. In short, although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ere influenced by the royal tomb of King Gongmin of the Goryeo Dynasty based on the styles of the Yuan and Ming Dynasties; they also display features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Unified Silla and Goryeo in terms of the different number, arrangement and types of stone sculptures.

---

\* Assistant curator, Daejeon Metropolitan City Museum

At Joseon's tombs, the stone sheep, which are depicted standing, symbolize filial piety and auspiciousness. When positioned inside the tombs, they also take roles as victims sacrificed to communicate with heaven and as auspicious guardians intended to drive out bad spirits. The tigers, which are sitting, take roles as protectors of the tombs from evil. They are gallant and auspicious animals which were meant to drive out demons and defend the tombs. Meanwhile, the horses, which are standing, have meaning as ascension and defense.

The stone guardians of Joseon's tombs are divid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their changing styles. Each group corresponds to a particular century. In the 15th century, the shape of the stone animals was fixed, thus setting certain rules for subsequent centuries. The guardians of the Geonwolleung royal tombs (1408) of King Taejo represent this period, which is characterized by natural body proportions and delicate curves. The guardians of the sixteenth century are huge, imposing, more vividly carved, and dynamic.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is century are the stone guardians of the Hyoreung royal tomb (1545) and those of the Gangneung royal tomb (1567) of King Myeongjong. In this era, their roles as protectors from evil were emphasiz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sculptures become flat and schematized, while their faces became clearer, with greater detail. Examples from this period include the Ingneung royal tomb (1681) of Queen Ingyeong and the Sungneung royal tomb (1659) of King Hyeonjong. The 18th century in Korea is marked by the Renaissance and the popularity of realistic styles. The Yungneung royal tomb (1789) of Crown Prince Sado and the Geolleung royal tomb (1800) of King Jeongjo, whose stone animals have stable body proportions, sophisticated curves and delicate details, were made in that century.

The stone guardians at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are symbols of auspiciousness, playing roles as protectors, thus expressing th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country's leader more symbolically and successfully than any other stone objects at the royal tombs. In short, the stone sculptures of Joseon's royal tombs constitute the essence of the Korean royal family's unique stone art, which combines characteristics originating from both Korea and China.